

시론

목민심서, 백성을 향한 다산의 애뜻한 마음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소자(小字)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庸), 송포(頌浦)이다. 호(號)는 삼미(三眉), 사암(嵒菴), 다산(茶山), 탁옹(菴翁), 태수(峯),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선인(鐵馬仙人), 문암일인(門巖逸人)으로 불렸으며, 당호(堂號)는 여유당(與猶堂), 천주교명은 요안이다. 다산은 1762년(壬午年)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나 1836년 75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은 그의 두 번째 유배지인 전남 강진(康津) 굴동(橋洞)의 뒷산 이름을 딴 초당(草堂)에서 유배했다. 다산은 진주(晉州) 목사(牧使)로 순직한 압해(押解) 정씨 재원(載遠)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외가는 해남(海南) 윤(尹)씨로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후예인 공재(恭齊) 윤두서(尹斗緒)의 외손자이다.

다산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임지를 따라다니며, 본인 스스로 목민관으로서 직접 목도한 백성들의 어렵고 힘겨운 삶이 그의 행정과 제도개혁에 대한 저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산은 평생토록 정치·경제·인문·자연·과학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를 남겼는데, 대부분 18년간의 유배생활 동안 집필했다. 힘든 유배생활 속에서 이렇게 집필 및 저술에 전념한 이유는 단순한 학문적 열정이나 지식의 탐구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학(實學)의

학문적 성과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하고자 하는 그의 사명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산의 대표적 저술로 평가되는 일표이서(一表二書)인 경제유표(經世遺表·1817년), 목민심서(牧民心書·1818년), 흙흙신서(欽欽新書·1819년) 중 목민심서는 전남 강진현(康津縣) 유배 중에 완성됐는데, 목민심서는 목민관으로서 치민(治民)에 관한 도리를 기록한 저서로 책의 이름을 목민심서라고 한 이유를 다산은 "목민할 마음만 가졌지, 몸소 시행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목민심서는 다산의 실제적인 행정관료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특히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목민심서는 고금의 여러 문헌에서 지방장관의 사적을 정리해 백성에 대한 도리를 논한 책으로 농민의 실태, 서리(書吏)의 부정부패, 토호(土豪)의 착취(作弊),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 등과 조선 후기 조세제도의 개혁에 대한 그의 견해와 조세사상을 담고 있다.

특히 다산은 목민심서에서는 당시 조세행정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위표(經緯表)를 소개하고 그 활용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위표는 겸암(謙菴) 유운룡(柳雲龍·1539년~1601년)에 의해서 먼저 고안된 것으로 보여진다. 겸암은 임진왜란의 역사적 기록인 징비록(懲錄)으로 유명한 서애(西厓) 유성룡(成龍)의 형으로 퇴계(退溪) 문하에서 공부를 했으며,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자라서는 경문(經文)에 두루 통했다고 한다.

겸암 역시 다산처럼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곤란한 삶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쓴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경위표들은 투명한 세정관리를 위한 조세정책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

호전(戶典)에서 특별히 겸암의 인동(仁洞) 현감(縣監) 재임 중의 경위표 활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시행 중단에 대하여 개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다산의 저서에서 보이는 크고 작은 경위표들은 겸암의 제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당시 이 제도가 제대로만 시행됐다면 조선 후기 삼정(三政)의 문란 등 전세(田稅)제도의 부정을 막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이처럼 다산은 경제치용(經世致用)과 사회개혁의 의지와 구상의 꿈과 뜻을 학문의 영역에서나 실천하고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유배지에서 돌아온 다산을 정조(正祖)는 목민심서에서 제시한 실학사상을 실제 경전정책(經田政策)의 책임자로 등용하기 위해 추천했으나, 당시 정승이었던 서용보(徐龍輔)가 강력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때 만약 정약용이 등용됐다면 경위표와 같은 다산의 많은 정책들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충돌과 이해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 제안들이 과연 얼마나 깊은 국민의 과정에서 미래를 보는 혜안과 통찰력을 통해서 결정된 것인가를 자문하게 된다.

문득 목민심서를 통한 다산의 봉공애민(奉公愛民)의 정신을 떠올리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발견하고, 역사 속 선현들의 숭고한 사상을 돌이켜 봄으로써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社說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은 문화수도 광주의 자존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수장고 부족이 지적되지 오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작품 5천587점을 보유, 포화율이 96%에 달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도 1만8천12점으로, 97%가 차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작품도 6만7천985점으로 98%다. 김치박물관은 793점을 보유, 80%에 이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시립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호남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수장품 증가량은 매년 8천200점 수준인데, 2070년에는 수장품이 52만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증 의사가 있더라도 마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도 노후화되고 협소한 수장고로 인해 분류 과정부터 애를 먹고 있다. 더군다나 유물의 일부 훼손·멸실 사례까지 있었다고 한다. 선조들에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 전시보다 중요한 소장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소중한 유물과 미술품 보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광주시가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를 짓기로 했다.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을 전담할 전문수행기관 선정도 마무리했다.

센터는 소장품의 재질과 종류, 특성에 맞춰 전문수장고를 증설하고, 3D스캐너, X선 투과조사기, 정밀분사가공기 등 장비를 운영하는 보존처리과학실도 갖는다. 또 관련 분야 연구자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 공간을 구현한다.

문화수도라는 광주다. 고대 문명을 꽃피운 영산강 유역의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수많은 종가·종택 등에는 미처 알려지지 않은 귀한 유산이 부지기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수장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는의 자체가 늦은 측면도 있다.

통합수장고는 광주의 자존심이다. 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인프라로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 시민 누구나 찾고 누리는 관광 명소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문화적 우수성과 역사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이다. 전문화된 특화시설이 들어서면 유물 기증이 더욱이해될 것으로 보인다. 제반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한다.

서남권 거점 무안국제공항 정기노선 유치에 최선을

'무늬만 국제공항'이라 불리는 무안공항에서 중국, 일본 등을 오가는 정기 노선이 운영된다. 제주항공은 4월부터 제주 주 4회, 장가계 주 4회, 연길 주 2회, 5월부터 사가 주 3회를, 진에어는 5월 초부터 제주 주 2회, 몽골 울란바토르 주 2회를 운항할 예정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4년 만에 무안공항이 활력을 찾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제선 여객은 이미 10만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단거리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발급제도 역시 효과를 내고 있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이후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8년 50만명, 2019년 8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정기선 부재와 코로나19 방역 사태가 겹쳐 다른 공항보다 더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전남도가 항공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튼튼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항공사 손실금을 정기 노선 운항 장려금으로 집행, 승통을 트었다.

국토 서남권 거점을 표방하고 있다. 코로나이

전인 2019년 과감한 유인책으로 제주항공 등 노선을 운영해 이용객이 90만명에 육박했다. 다양한 정기선 유치부터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 접근성도 개선돼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나주와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에 이르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는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거리 국제선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분개도다. 앞서 공항 진입도로 8.12km의 4차선 확포장을 완료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주차장 1천413면을 증설해 총 3천284면으로 늘렸다.

광주시와 민간공항을 KTX 완공 때까지 옮기는 방안도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정기선 확대와 노선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잇따른 신공항 건설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엔 업무협약을 맺은 대표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진에어와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고

소중한 산림자원, 산불로부터 지킵시다!



이병노

담양군수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경칩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민들이 움직이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반갑기만 한 봄이지만, 불청객도 숨어있다. 바로 산불이다.

겨우내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함께 불어오는 강풍은 봄을 산불에 취약한 계절로 만들어 산불은 주로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영농철인 2-4월에 자주 발생한다.

특히 3월부터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정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묘지 사초 등 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많아진다. 산불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 원인으로 는 역시 사람의 부주의함이 가장 크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건으로 그중은 6발두령 및 쓰레기 소각이 가장 많은 원인(31%)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입산자 실화(29%), 공사현장 등에서의 불씨취급 부주의(11%) 순서로 모두 사람의 부주의함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일구었던 논밭을 새로 가꾸기 위한 농민들의 관습적인 영농부산물 소각은 우리 산림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 또한 아름다운 산림을 만끽하기 위해 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화기물 소지에 더 신경 쓰고, 낙엽이 많은 산에서의 취사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과태료 30만원,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산불과 같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해 예방하는 정책만이 날로 규모가 커지는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

담양군은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을 지정해 각 읍·면에 감시 인력(24명)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차량방송과 마을방송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전면 금지되고 있는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막고자 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고,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반을 운영하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전문예

방진화대와 산불진화헬기(1대)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담양군은 산림자원의 가치에 집중해 왔다.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죽녹원, 그리고 2000년 국도 확장 공사로 베어질 위기에서 군민의 힘으로 지켜낸 메타세쿼이아길은 담양을 대표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심터로 거듭났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담양 3대 명품숲'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단순히 개발만을 생각했다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담양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경쟁력을 갖춰갈 계획이다.

올해도 여전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확산하기 전 진압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두가 산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아름다운 우리 산림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모든 주민의 동참으로 푸르른 우리 숲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신변중사기 스미싱 수법

최근 사기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신변중사기가 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명 '스미싱(Smishing) 사기'가 대표적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설치를 유도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이다. 스미싱의 종류를 알아보자.

첫 번째, 택배사칭 스미싱이다. 택배기사를 사칭해 배송지가 잘못입력되어 물품이 지연되고 있으니, 배송위치를 수정해달라며 URL 링크를 보내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돼 개인정보 탈취 및 피해자도 모르게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지인사칭형 스미싱이다. 해킹된 휴대폰의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청첩장·부고장 형식의 문자를 보내 장례식장 또는 결혼식장의 위치를 URL 링크와 함께 보내는 것이다. 위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해킹프로그램이 휴대폰 내 자동설치돼 그 휴대폰의 주소록 지인들에게 또한 스미싱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수법이다. 즉, 속주 형식으로 계속해서 전파해나가는 것이다.

자칫 실수로 해당링크를 클릭했다면 당황하지 말자. 경찰청에서 만든 앱 '시터즌코난'을 설치해 휴대폰 내 악성프로그램을 감지

후 삭제할 수 있다. 또한 112신고를 한 후, 신속히 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관련 피해사실을 알려 2차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 유출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센터(133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점차 지능화되는 피싱 수법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피싱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평소 휴대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분명한 링크 클릭은 금지하여 사전예방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인영·해남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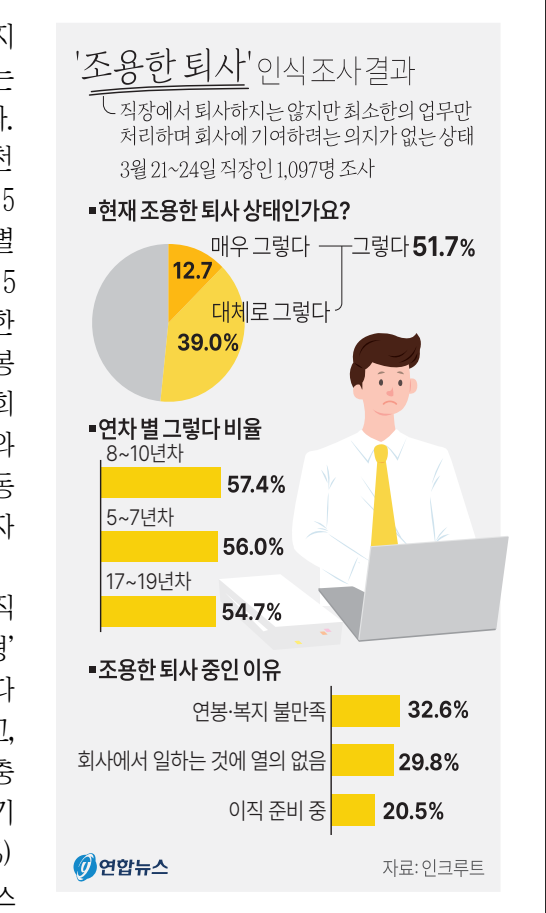
직장인 2명 중 1명은 '조용한 퇴사' 중... "연봉·복지에 불만족"

직장인 2명 중 1명꼴로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천 9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현재 '조용한 퇴사' 상태라고 답했다. 연차별로는 8-10년차(67.4%)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7년차(56.0%), 17-19년차(54.7%) 순이었다. '조용한 퇴사' 중인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현재 회사의 연봉과 복지 등에 불만족해서(32.8%)가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열의가 없어서(29.8%)와 이직 준비 중(20.5%)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동료가 '조용한 퇴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5.8%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실제 퇴사할 때 유형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이직과 사업 등을 준비하다 퇴사하는 '계획적인 퇴사형'(56.8%)이 가장 많았다. 친한 동료에게만 얘기하다 퇴사하는 '소곤소곤 퇴사형'(27.6%)이 뒤를 이었고, 평소처럼 있다가 갑자기 총동적으로 퇴사하는 '총동적인 퇴사형'(11.0%), 평소 퇴사하고 싶음을 여기저기 얘기하다 퇴사하는 '시끄러운 퇴사형'(3.6%)도 있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